

코로나 극복·경제 회복 올인 ‘국정동력 찾기’ 나선다

문대통령 집권 5년차 구상...이달중 중기·노동·산자 등 중폭 개각 지지율 정부 출범 후 최저...백신·치료제 확보, 경제 충격 극복에 집중

문재인 대통령은 신축년(辛丑年) 첫 일요일인 3일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집권 5년 차 정국구상에 몰두했다. 코로나19 극복과 경제회복을 통해 선도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새해 비전이다. 하지만 최근 계속되는 지지율 하락, 입기 후반 국정 장악력 저하 등 뛰어넘어야 할 난관도 산적해 있다. 실제로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34.1%로

조사됐다. 반면, 부정평가는 61.7%로 나타났다. 리얼미터 조사 기준으로 부정평가가 60%를 넘긴 건 이번이 처음이며, 긍정평가도 현 정부 출범 후 최저치다. 일단, 문 대통령은 방역과 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기조 아래 백신·치료제의 조기 확보, 경제 충격 극복 등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또 코로나 극복에 더해 문 대통령이 ‘국민통합’을 집권 5년 차의 화두로 던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올해도 진영 간 대결 구도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경

우, 권력기관 개혁을 포함한 국정과제를 제대로 매듭짓기 어렵다는 인식에서다. 정치권에선 문 대통령이 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 여야정 상설협의체 등을 통한 야당과의 소통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지난해 말 착수한 인적쇄신에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새 인물을 수혈해 어수선한 분위기를 다잡고 성과 거두기에 매진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이달 초중순 5개 안팎 부처를 대상으로 중폭 개각이 이뤄질 전망이다. 당장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결심할 경우 중기부 장관은 새 인물로 채워지게 된다. 여기에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등의 교

체 가능성이 거론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교체 여부도 관심사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최근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및 코로나 방역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의를 반려했던 만큼 경제 총사령관인 홍 부총리도 당분간 유임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후임 경제부총리에게도 적어도 1년은 ‘일할 시간’을 쥐어 한다는 점에서 연초 교체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반론도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경우 당분간 유임될 가능성이 크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 역시 교체 대상에서 일찌감치 비켜난 모양새다. 청와대 비서진의 경우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새로 발탁된 만큼 조만간 일부 수석이나 비서관급의 교

체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인적 쇄신 카드가 내놓을 성과다. 인적 쇄신에도 불구하고, 민생의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를 내놓지 못한다면 오히려 정권 말기 레임덕은 가속화될 수 있다. 이를 반영하듯, 청와대는 휴일인 3일 오후 유영민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보좌관들이 참석하는 새해 첫 내부회의를 열고 일선의 각오를 다졌다. 유 실장은 이날 1시간가량 열린 회의에서 ‘육직’이라는 청와대’를 거듭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실장은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필요한 일들을 위해 움직이자”며 “땀 흘려서 챙기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오전 국무위원들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참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 새해 첫 일정은 현충원 참배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서울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고 새해 국정운영의 각오를 다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및 유영민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청와대 참모진들과 현충원을 찾았다. 문 대통령은 현충탑에 헌화·분향하고 묵념을 하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렸다. 문 대통령은 참배 후 방명록에 “국민의 일상을 되찾고 선도 국가로 도약하겠다”고 적었다. 참배엔 정 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

정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등 국무위원 19명과 유 실장 및 서훈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탁현민 의전비서관 등 청와대 참모진 7명이 동행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공군지휘통제기인 ‘피스아이’에 탑승해 한반도 전역의 대비태세를 점검하는 초계비행에 나섰다. 국군통수권자가 피스아이에 탑승한 것은 최초로라 청와대는 설명했다. 피스아이는 공중감시, 조기경보, 지휘통제 임

무를 수행하는 우리 공군의 핵심전력이다. 또 새해 첫 일정으로 한반도 대비태세를 살핀 것은 ‘강한 안보 없이는 평화도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청와대는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6시 10분 성남의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에 도착해 원인철 합참의장으로 부터 피스아이 제원 등을 설명받고, 6시 30분에 지휘비행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2시간여 동안 우리 영토와 영해를 비행하며 22사단 GOP대대장인 오동석 육군 중령, 해병대 연평부대장인 이종문 해병 대령, 공군작전사령부 항공우주작전본부장인 차준선 공군 준장, 울곡이이함 함장인 류윤상 해군 대령 등과 통화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

정세균 “대선보다 코로나 극복 우선”

라디오 인터뷰...“윤석열, 중립성 위해 여론조사 빼달라고 해야”

정세균 국무총리는 자기 대권행보와 관련, “총리의 책무가 너무 막중한 상황에서 한눈을 팔면 안 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지난 1일 SBS라디오 ‘이철희의 정치쇼’에 출연해 “지금은 대선주자라기보다는 총리”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현재 코로나19를 이기고 민생도 챙겨야 한다”며 “코로나19 이후의 대한민국을 준비하는 일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리직에서 물러난 후 대권에 도전할 것이라는 관측이 이어지는 상황이지만 집단방역의 구체적 로드맵이 나오기 전까지 총리 역할에 매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각종 대권주자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상위권에 오르는 상황에 대해선 윤 총장이 직접 여론조사기관에 자신의 이름을 빼달라고 요청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었다. 정 총리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누리려면 여론조사에서 빠져 처신을 깔끔하게 해야 한다’는 사회자의 말에 “(윤 총장) 본인이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백신 수급 상황을 비판하는 여론에 대해서는 “정부가 깨어있으면서 제대로 준비하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며 “백신의 정치화는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정치가 계속되는 안 된다”며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여당이 먼저 양보해야 하는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 국가시험 거부자들에게 대한 별도의 시험 기회 방점과 관련해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의사 배출을 1년을 지연하는 것은 선택하기 어렵다”며 “국민을 위해 결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법사위, 이주내 날짜 결정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이 4일 국회에 제출된다. 예정대로 요청안이 제출되면 국회는 오는 23일까지 청문회 절차를 마쳐야 한다. 김 후보자의 청문회를 준비하는 공수처설립준비단 관계자는 3일 “청문요청안을 마무리해 4일 국회에 송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의 병역과 재산, 최근 5년간의 소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 납부·채납 실적, 범죄경력 등이 담긴 청문 요청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에 요청안이 접수되면 김 후보자에 대한 본격적인 검증 심호탄이 쏟아질 것이라는 의미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요청안을 접수하고 20일 안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국

회는 오는 23일까지 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 결과보고서를 문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한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청문회 날짜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사위는 같은 날 지명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진행해야 하는 만큼, 청문회 날짜가 다소 유동적일 수도 있다. 법사위는 청문 요청안에 담긴 내용을 토대로 서면질의서를 청문회 개최 5일 전까지 김 후보자에게 보내고, 김 후보자는 청문회 개최 48시간 전까지 답변서를 보내야 한다. 국회가 시한인 23일까지 결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보고서를 다시 보내 달라는 요청(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다. 국회가 여기에도 응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연합뉴스

딱 한잔 드셨습니까?

2019년 6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되어
딱 한 잔만 마셔도 처벌되고
단속 시 처벌 수준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이래도 음주운전하시겠습니까?